

강남대성학원 생활의 모든 것

Pathfinder 지음

Ver. 1.0.0

- 0. 시작하기
- I. 학원 등록 및 시작
- II. 주거지 선택
- III. 반편성
- IV. 학원 생활
- V. 빌보드
- VI. 친목 및 연애
- VII. 외부 강의
- VIII. 주변 식당 및 카페 그리고 외부 기타사항
- IX. 퇴원
- X. 기타 조언
- XI. 팁
- XII. 질문 & 답변

0. 시작하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거의 다 재수 혹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막막하시겠죠. 재수를 본인의 인생설계에 포함 시켜두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앓을 것이기에 재수는 그 자체만으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혹, 재수를 미리 계획하셨더라도 그 길은 경험해 본적 없는 길이기에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재수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강남대성학원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문은 많이 들어봤어도 강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의 1년간을 몸담을 곳인데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그 막막함을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주간 정규반 기준이나 다른 반들도 참고하실만 할 것입니다.

I. 학원 등록 및 시작

학원은 보통 1월중에 원서 접수를 받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하셨고 합격도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강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아무래도 어디서 잘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I.주거지 선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작년(2015년)의 경우 2월 9일에 개강을 했지만 올해는 2월 15일 개강입니다.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졌네요. 작년에 유독 개강을 빨리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개강하는 것 같군요.

II. 주거지 선택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을 합니다. 등원에는 편도 1시간 30분이나 그 이상인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대부분 1시간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이 너무 걸리는 사람이나 지방처럼 근본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학원 근처에서 적당히 살 곳을 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근처에 친척집이 있어서 1년간 머물면서 했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학사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학사의 근본적인 특징인 생활을 관리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주고 밥먹여주고 학원 보낸 뒤 학원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지 체크해줍니다. 통금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안 들어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에 여학생들의 부모님이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안전하거든요.

추가 내용 본문참조

ii. 고시원 및 원룸/오피스텔

본문참조

iii. 통학

본문참조

III. 반편성

보통 반은 성적대별로 배치가 됩니다. 단순히 1반 = 1등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앞반, 중간반, 뒷반 이렇게 큰 분류로 나눈 후 인문계는 사탐, 자연계는 과탐 선택에 따라 적절히 반을 배치합니다. 무시험 선착순, 무시험 성적순은 앞반, 중간반, 뒷반에 고르게 배치가 되고 유시험은 일반적으로 뒷반에 배치가 됩니다. 다만 빌보드(빌보드 항목 참고)를 보면 일반적으로 앞반이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 본문참조

IV. 학원 생활

이 문서의 핵심인 학원생활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최대한 모든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i.개강

보통 개강 첫날은 오전에 불러 간단히 담임선생님 소개 및 OT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보통 점심 먹기 전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날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학원생활이 시작됩니다. 등원시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실 그 시간과 동일합니다. 야자도 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모든 선생님들을 한 번씩 만나 뵈는 일주일가량 소모되는데 첫 수업은 거의 다 OT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ii.하루 생활 패턴 (평일)

본문참조

하루 생활 패턴 (주말 및 공휴일)

본문참조

iii. 식사

식사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식사합니다. 보통 학원에서 하는 식사는 크게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취생들을 위한 아침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아워홈에서 담당하게 되며 ABCD 총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D는 자율배식이며 총 메뉴는 3개정도이며 2개일 때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저는 가격대비 다소 별로라 생각했으나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준수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건 과거 대성학원의 교대시절 도시락 보다 퀄리티가 좋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죽을 신청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모두 특정 시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식당의 크기는 대략 1000여명이 한번에 식사 할 수 있는 수 준입니다.

추가 내용 본문참조

iv. 자습

본문참조

v. 학원 수업

본문참조

vi. 외출 및 조퇴

외출 및 조퇴는 보통 선생님 싸인 -->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 도장 --> 출입구에서 알바생에게 제출 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사인만 받으면 그 다음 과정은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외출의 경우 보통 점심시간이나 오후 자습시간등 잠시 외출 후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허락만 받으면 그 어느 시간이나 허락된 시간만큼 외출 가능합니다. 조퇴의 경우도 담임선생님의 허락만 받으면 허락 받은 시간에 조퇴할 수 있습니다. 외출 및 조퇴의 난이도는 100%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이패스 담임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팁으로 가끔 시간을 안 적고 사인만 하고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틈틈이 여러 장 모아놔다가 필요할 때 요긴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vii. 기타 생활환경

고등학교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책상도 고등학교때 것보다 좁으며 한 반에 60여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마치 닭장과도 같죠. 개인 사물함이 있지만 턱없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인 옆의 좁은 복도에 상자등을 이용해 책을 넣어서 두거나 그냥 쌓아둡니다. 초반엔 그래도 얼마 안되지만 후반에 갈수록 통로 본연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책이 많아집니다.

추가 내용 본문참조

V. 빌보드

본문참조

VI. 친목 및 연애

본문참조

VII. 외부 강의

본문참조

VIII. 주변 식당 및 카페 그리고 외부 기타사항

본문참조

IX. 퇴원

본문참조

X. 기타 조언

본문참조

XI. 팁

본문참조

XII. 질문 & 답변

본문참조

참고사항

모든 구매자 분들께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항상 최신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goo.gl/forms/whFhYhk28W> 를 통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모든 구매자 분들께서는 <http://goo.gl/forms/KSNe0nzHyD> 을 통해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